

학교, 학년 : _____

이름 : _____



1960년대 박물관 전시 풍경



박물관 현재 모습

♣ 박물관 소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대학의 문화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935년 4월 6일 이화여대 본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에는 부산에 마련된 임시 캠퍼스인 필승각에서 박물관을 다시 열어 문화재를 보호하고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았으며, 유엔군과 외교사절단에게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1953년 서울로 돌아와 지금의 본관에 다시 진열실을 마련하여 교수들과 사회 유지들의 수집품을 기증받아 소장품을 더욱 풍부히 하였습니다. 현재 박물관이 있는 이 건물은 이화여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989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전 시대를 아우르는 유물 25,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의 전시와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조선백자> 전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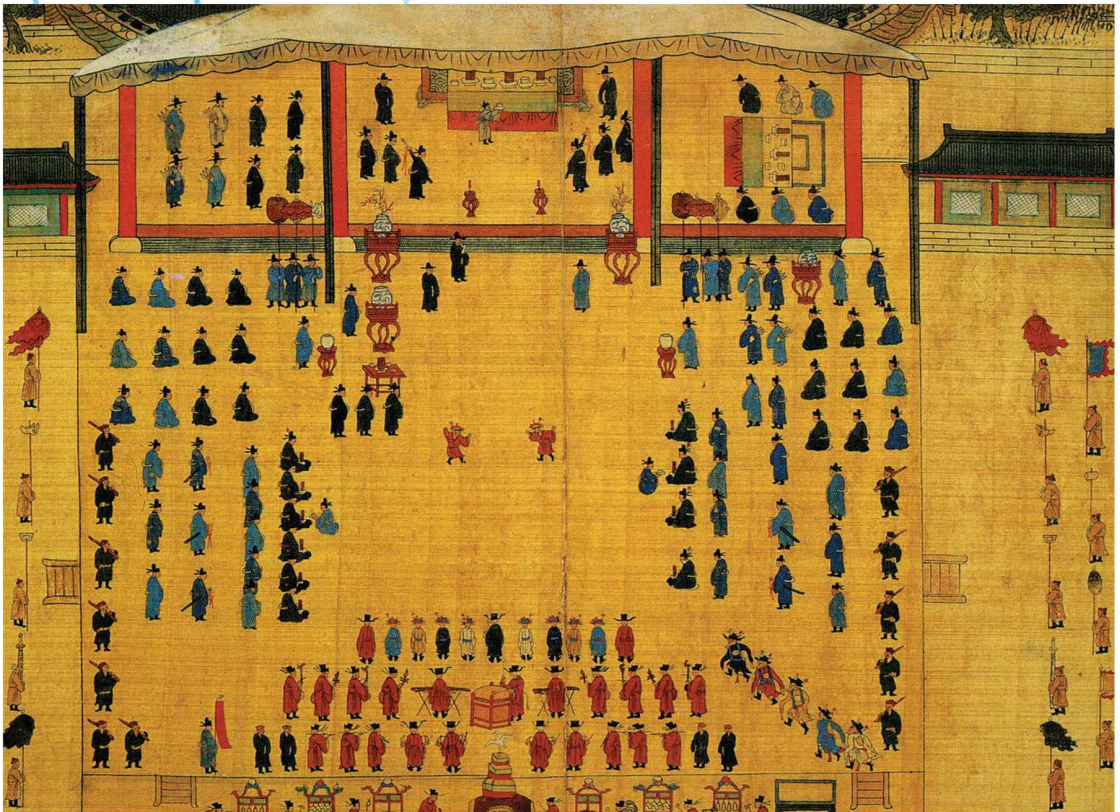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은 개관 80주년을 맞이하여 소장품 특별전 <조선백자>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박물관이 그동안 수집해 온 조선백자 중 600여 점의 도자를 1, 2층 전관에 걸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는 조선시대 백자의 전반적인 흐름과 다양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시는 모두 5개의 주제로 나뉘어 있는데, 우선 1층에는 왕실 의례용 기물과 명문 백자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조선왕실과 백자”, 조선인들의 출생과 죽음을 도자기로 살펴보는 자리인 “백자에 담긴 출생과 죽음”, 그리고 조선시대 문인들의 가치관과 미감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리인 “문인문화의 유행”, 마지막으로 지방에서 제작된 백자가 전시되어 있는 “지방백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장수와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길상문이 시문된 백자들을 전시한 “무늬로 보는 상징과 의미”와 국보 107호 <백자철화 포도문호>가 단독으로 전시되어 있는 감상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선백자>전을 통해 500여 년간 조선이 추구했던 왕조의 이념과 상층부에서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애호되고 실용되었던 백자의 풍부한 조형미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1

구름 속을 힘차게 날아다니며 여의주를 잡기 위해 발을 뻗고 있는 용의 모습을 표현한 문양을 ‘운룡문(雲龍文)’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양인데, 이 운룡문이 그려진 항아리는 조선시대에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아래 그림에서 운룡문호가 몇 번 등장하는지 찾아보고 그림 속 상황을 통해 그 쓰임을 생각해 보세요.

**Tip**

위의 그림은 숙종 45년(1719), 왕의 환갑을 기념하여 왕과 나이 많은 대신들이 모여 연회를 여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으로, 이 행사의 상황을 묘사한 글과 그림 50편을 모두 모은 책을 <기사계첩(耆社契帖)>이라고 합니다.

문제 2

도자기가 제작된 시기나 용도 등은 굽 안바닥이나 주변부에 적힌 명문을 통해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굽 바닥에 쓰여진 ‘**대(大)**’ 자 명문은 **대전(大殿)**을, ‘**대진(大進)**’ 역시 **대전에 진상함**을, ‘**별진(別進)**’은 **별번품(특별히 구운 도자기)**을 표기한 것으로 왕실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좀 더 긴 문장으로 적힌 경우도 있는데, 가령 ‘**신미 제수합고간 칠죽(辛未齊壽閣庫間七竹)**’

이란 명문은 경복궁내의 제수각(齊壽閣, 고종 4년(1867) 11월 중건) 고간에서 신미년(1871)에 사용한 발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죽’은 10개를 표시하는 단위이므로 접시 70개가 납품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신 슈강재고간 대동쇼 이십죽**’
戊申 壽康齊庫間 大中小 二十竹

이라고 적힌 명문은 언제, 어디서, 몇 개의 그릇이 소용되었음을 의미할까요? 한번 추측해보세요.

**Tip**

수강재(壽康齊)는 창덕궁에 있는 건물로 정조 9년(1785)에 지었으며, 단종이 머물렀던 옛 수강궁(壽康宮) 자리에 세워 수강재라 이름 붙였던 곳입니다.

문제 3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은 백자를 일상용으로서뿐만 아니라 각종 의례, 제사 용기로서도 사용하였고, 무덤에 들어가는 부장품인 명기와 묘지석 또한 백자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묘지석은 무덤 주인의 태어나고 죽은 날과 행적 등이 적혀 있어 함께 발견된 부장품들의 제작시기를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시실에 소개된 묘지석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세요. **숙의 윤씨 묘지를 확인하고 빈칸을 채우면서 묘지의 내용을 확인해봅시다.** 만약 나의 묘지석을 미리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떤 내용을 적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면서 아래 비어있는 묘지석에 한번 써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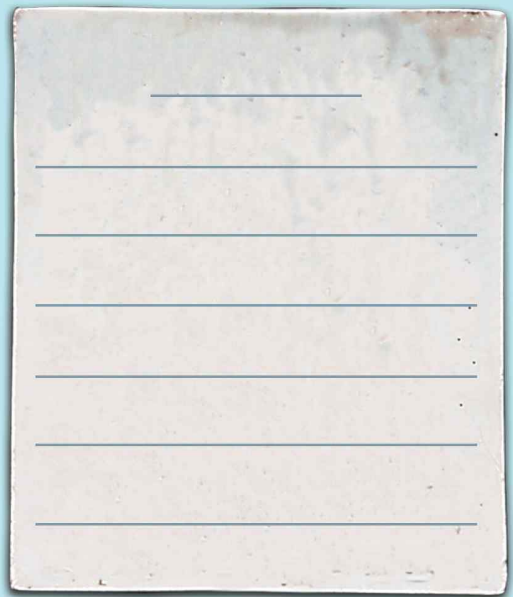
백자청화 숙의윤씨 묘지

(靑畵白磁淑儀尹氏墓誌)

제1전시실 <백자에 담긴 출생과 죽음>

숙의 윤씨는 년에 태어나 년 연산군의 으로

들어가 숙의가 되었습니다.

 후 돌아갈 곳이 없어 조카인윤씨를 로 삼아 후사를 맡겼고, 년에 사망했습니다

문제 4

백자는 조선 왕실에서뿐만 아니라 성리학적 이념을 기반으로 조선사회를 이끌어간 사대부들에게도 매우 사랑받았던 도자기였습니다. 현존하는 백자들 중에는 당시 문인들의 기호와 삶을 반영하는 문양들이 시문된 예가 많이 남아있는데, 아래 그림들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설명을 읽어보고 맞는 문양과 연결시켜보세요.**

1.



백자청화 산수문 시명 팔각 병 부분,
조선 18세기

2.



백자청화 매조죽문 호 부분,
조선 16세기

3.



백자청화 산수문 편병 부분,
조선 18세기 후반-19세기

4.



백자청화 화접기명문 호 부분,
조선 19세기

A.

여러 가지 옛 그릇들과 꽃, 채소 등의 다양한 소재를 한데 모아 그린 문양으로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라 부른다.

참고

- 조선 후기 옛 기물과 그림을 모으고 감상하는 고동서화 취미가 대대적으로 유행하면서 문양 소재로서 크게 성행하였는데, 문방사우, 공작깃털, 도자기 등의 소재가 각각의 특별한 길상적 의미를 지닌채 한 공간에 어우러져 있다.

B.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한을 숭배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

참고

- 장한(張翰)은 진나라 때 문장가로 벼슬하는 중에 고향인 강동의 순채국과 농어회가 그리워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C.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의 주제 중 하나인 ‘동정추월(洞庭秋月)’.

참고

- 소상팔경은 중국 후난성 소수(瀟水)와 상수(湘水)가 합류하는 곳의 경치를 여덟 폭으로 그린 산수화로, 이 중 ‘동정추월’은 동정호수에 비치는 가을달빛을 뜻한다.

D.

‘추운 겨울의 세 벗’이란 뜻의 세한삼우(歲寒三友), 소나무, 대나무, 매화 계절 문양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중 매죽의 선호도가 높았다.

- 이 항아리에는 매화와 대나무 사이에 날고 있는 새, 지저귀는 새, 잠든 새 등 각기 다른 포즈의 네 마리 새가 표현되었다.

문제 5

십장생은 소나무, 구름, 산, 돌, 물, 해, 학 등 불로장생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길상소재로, 고대로부터 회화, 조각, 공예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자주 사용된 문양입니다. <무늬로 보는 상징과 의미>실에는 이러한 십장생들을 장식 소재로 한 백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칸에 해당하는 백자를 직접 살펴보고 이름을 적어보면서 어떠한 소재들이 십장생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세요.**



백자청화 십장생문 발,
조선 19세기

사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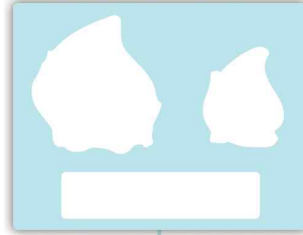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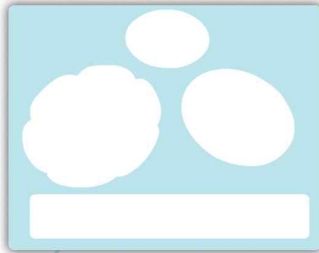
백자청화철화 화문 도형 잔
조선 19세기

복숭아



백자청화 학구문 호
조선 19세기

거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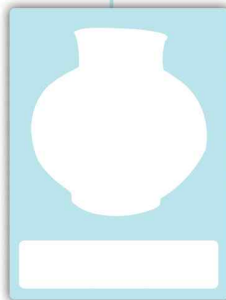
학

백자철채양각
매죽운학문 병,
조선 19세기



사슴

백자청화양각 십장생문 합,
조선 19세기



복숭아

백자투각 도문 원형 필통
조선 19세기



문제 6

아래 사진은 도자기 굽 부분의 파편 조각들입니다. 굽에 작은 흠덩어리들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흠 빛음을 굽에 붙였을까요?**



1. 자기를 사용할 때 바닥이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지 위한 장치이다.
2. 여러 개를 포개어 구울 때 떼어내기 쉽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3. 제작과정에서 실패해서 버려진 자기들이다.
4. 굽의 디자인을 위해 특별히 부착한 것이다.

Tip

아래 그림은 가마 안에서 도자기를 구울 때의 모습입니다. 도자기의 완성도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도구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도침(도자기 받침)을 놓고, 도자기의 굽에도 받침을 고였으며, 대량생산을 위해 여러 개를 포개어 갑발에 넣어 번조했습니다. 특히 굽에는 여러 종류의 굽받침을 사용했는데, 고운모래, 굵은모래, 태토로 빚어만든 받침, 흙물 등이 이용되었습니다.

